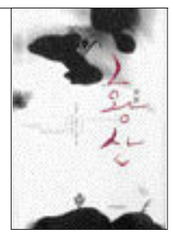
북스

Books

광기의 '살인 쇼'…TV를 꺼라!

황산 아멜리 노통브 지음



지난 2001년 프랑스의 민영방송인 M6에서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로프트 스토리'를 방영했다. 11명의 젊은 남녀는 특별 제작된 저택에서 생활하며, 화장실을 뺀 모든 공간에 설치된 26대의 카메라가 이들을 감시한다. 시청자들은 매주 투표를 통해 탈락자를 선택하고 70일의 방송 기간 동안 끝까지 살아남은 한 명에게 저택과 상금이 주어지는 방식이었다.

프로그램은 이웃 나라 네덜란드에서 1999년 첫 방영돼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빅브라더'의 프랑스판으로 불리며 뜨거운 찬·반논쟁을 불러왔다. '인간을 실험 도구로 사용한 저급한 방송'이라는 비판과 '시청률이 높다는 것은 시청자가 원한다는 것'이라는 찬성이 맞섰다. 공영방송의 토론프로그램 주제로까지 채택될 정도였다.

시민들을 무작위로 잡아 '집단수용소'에 가두고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삼은 아멜리 노통브의 소설 '황산(黃酸)'이 국내에 번역·출간됐다. 이 책은 지난해 출간 당시 '로프트 스토리'가 그랬던 것처럼 프랑스 출판계에 많은 논란을 가져온 화제작이다.

1995년 '살인자의 건강법'으로 데뷔하던 해부터 매년 한 권 이상의 소설을 생산해내고 있는 노통브에게 비판자들은 '매년 신작을 내놓지 않아도 되니 좀 쉬라'는 비아냥을 해대는 한편, '비판을 위한 비판은 그만'이라며 노통브를 옹호하는 쪽이 양립했다. 문학전문지 '리르'에서 이례적으로 양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싣는가 하면, 인터넷 서점 '아마존 프랑스'에는 네티즌들의 평가가 별 하나와 별 다섯개로 엇갈렸다.

소설은 식물원을 거닐던 스무 살 여대생 파노니크가 리얼리티 쇼 '집단수용소'의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붙잡히면서 시작한다. 시청률에 고민하던 방송사가 선택한 것이 '고통의 쇼'였던 것. '집단수용소'의 관리자를 '카포(나치 수용소에서 동료 포로나 죄수를 감독하는 사람)'라고 부르는 것은 나치 수용소를 연상케 한다. 포로들이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것까지도. 다른 것이 있다면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점이었다.

방송은 처음부터 순조로웠다. 연일 기록을 갱신하며 시청률을 높였다. 포로들은 방송을 위해 "아무 쓸모가 없는데도 무조건 파야만 하는 터널에서 하루 종일 돌덩어리를" 치우고 채찍 아래 불결한 수프로 연명해야 했다. 'CKZ114'가 된 파노니크는 비슷한 또래의 여성 카포인 즈데나로부터 '역겨운' 애정 공세를 받는다.

하지만 파노니크는 '그래도 시청자들보다는 덜해. 채찍질을 당하는 내 모습을 구경하는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날 때리는 저 여자가 나아. 적어도 위선적이진 않으니까'라고 생각한다. 포로들 사이의 영웅인 파노니크와 악의 화신 즈데나의 교묘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시청률이 일정 수준에서 멈칫할 즈음 방송사는 처형될 포로를 시청자들이 직접 고를 수 있도록 '쌍방향' 시스템을 적용한다.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광기의 쇼'를 멈추게 할 대안이라던 언론을 비웃듯 시청률은 100%까지 치솟는다. 시청자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라면서도 TV에서 눈을 떼진 않았다.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시청자들을 비난했던 파노니크가 처형자로 선택된다. 포로들의 운명은 이제 파노니크와 그녀를 사랑하는 즈데나의 손에 넘어간다.

황당한 설정이지만 노출증과 관음증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을 뒤돌아보게 한다. 그런 점에서 소설 첫 문장은 의미심장하다. "타인의 고통만으로 더는 충분치 못한 순간이 왔다. 그들에겐 고통의 쇼가 필요했다."

〈문학세계사·8천500원〉 /정상필기자 camus@

인간의 욕망은 어쨌든 진화한다. 최초의 리얼 프로그램인 '빅 브라더'의 온라인 시리즈용 세트장(아래 왼쪽)과 '빅 브라더' 온라인판이 방영될 가상현실 사이트 '세컨드라이프'. 위는 작가 아멜리 노통브.

'우리고전 100선' 시리즈 6권 출간

돌베개 출판사가 우리 선조들의 명시 또는 명저를 발췌해 엮은 '우리고전 100선 '시 리즈 1차분 6권을 출간했다. 출간된 작품은 '말똥구슬-유금 시집', '길 위의 노래-김시습 선집', '욕심을 잊으면 새들의 친구가 되네-이규보 선집', '우주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홍대용 선집' 등 6권.

대표 편역자인 박희병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는 발간사를 통해 "권위주의적이고 고지식한 고전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값싼 엉터리 고전책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을 특히 유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 출간될 2차분은 최치원·이황·이덕무·정약용·김정희 선집 등이다.

〈돌베개·1권 7천500원 2~6권 8천500원〉

조선 500년 저력, 선비·정승·부자

조선의 선비·정승·부자

이준구·강호성 지음

조선왕조가 단일 성씨로 500년 동안 지속된 것은 세계사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로 꼽힌다.

교육학 박사인 이준구씨와 출판기획자 강호성씨가 펴낸 '조선의 선비', '조선의 정승', '조선의 부자'는 선비들은 물론 재상, 거부들의 삶을 통해 조선사 500년의 저력을 조망하는 시리즈물이다.

'조선의 선비'는 깨끗하다 못해 궁상맞을 정도로 빈한한 삶을 살았던 꼿꼿한 청백리 30명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성종 때 덕천군수를 지낸 양관은 임금이 '양관의 행색도'를 자신의 거처에 걸어놓고 볼 정도로 청빈했던 선비다. 성종은 암행어사를 시켜 양관의 축재 과정을 추적했으나 오히려 청렴한 삶에 감동을 받아 청백리의 표본으로 삼았다. 영의정을 지낸 신흠은 벼슬에서 물러난 뒤 나라에서 환곡을 얻어 생계를 꾸릴 정도로 가난했다. 이를 보다 못한 백성들이 계란을 그의 집 대문 앞에 놓고 갈 정도였다고 한다.

'조선의 정승'은 조선왕조에서 재상을 지낸 인물들의 치세관과 삶, 당시 정치·시대상을 살펴보는 '정승열전'이다.

조선의 4대 명재상으로 꼽히는 황희, 맹사성, 유성룡, 채제공의 성장과정과 선비들의 우정, 정치관 등이 흥미로운 일화로 소개된다.

조선왕조 창업의 이데올로기를 제시한 정도전이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은 역사가 오늘에 주는 교훈으로 읽힌다.

'조선의 부자'는 '사농공상'의 사회풍토에서 잡초처럼 자라난 임상옥을 비롯 여성갑부 백선행 등 거부 11명의 삶을 통해 당시 시대·경제상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스타북스·각권 1만5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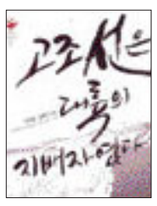
▲차베스, 미국과 맞장 뜨다=좌파 성향으로 최근 3선에 성공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를 분석한 책이다. 베네수엘라 혁명 연구모임은 차베스의 정책이 자주의 새 역사를 열고 있다고 주장하며 베네수엘라의 좌파 열풍을 옹호한다. 〈시대의창·1만2천원〉

▲그들은 어떻게 임원이 되었을까?=매일경제 김소연, 김병수, 정광재 기자가 대한민국 100대 기업 임원 200명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친 설문 조사 끝에 '임원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10대 자질'을 선정했다. 대기업 임원 25명이 전하는 자신만의 성공 비결과 경험담도 함께 담아냈다. 〈아인북스·1만4천500원〉

▲바보배=1494년 출간된 후 저자 제바스티안 브란트가 사망한 1521년까지 17판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책이다. 권력의 종말을 모르는 바보, 운명의 장난에 놀아나는 바보 등 100가지 이상 바보들의 유형과 다양한 행위를 풍자시로 기술했다. 〈안티쿠스·2만8천원〉

▲개를 위한 스테이크=지난해 타계한 풍자 작가 에프라임 키숀의 대표작이 재출간됐다. 잘난 아내와 말썽쟁이 아이들, 말 안듣는 개까지 뒷바라지해야 하는 고단한 가장이 만들어 내는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음미하게 만든다. 〈마음산책·9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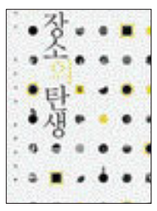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명상가였다=요가를 하고 있는 듯한 아기 사진 50여점을 요가 스승의 격언으로 엮어낸 명상 에세이집이다. 저자 수지 아네트는 이미 뱃속에서 108가지의 요가 자세를 행하고 태어난다는 아이들의 동작을 통해 어른들이 참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안내한다. 〈바다출판사·8천500원〉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역사학자 이덕일, 김병기가 광활한 고조선 땅을 직접 답사해 역사 속 오류를 지적한다. 풍부한 사료와 유물, 사진 등을 통해 고조선의 실체를 파헤치며 낙랑군 위치를 증명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물을 담고 있다. 〈역사의 아침·1만3천원〉

▲함께 있을 수 있다면1,2=2004년 가장 많이 팔린 소설로 프랑스 최대 체인 서점인 프낙에서 평점 10점을 받는 등의 기록을 세워 화제가 됐다. 화가와 요리사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문학세계사·각권 1만1천원〉

▲한국의 예언 문화사=한국 역사학계에 끊임없이 돋보기를 들이대온 백승종 교수가 한국의 예언 문화를 이야기한다. 한국에서 유행한 정치적 예언서의 내용과 사상적 특징을 살피고, 18세기 정감록이 기존의 역사서를 어떤식으로 계승, 발전시켰는지 분석한다. 〈푸른역사·1만6천500원〉



▲장소의 탄생=작가 장석주가 문학작품 속에서 지리적 공간에 대한 경험과 의식이 어떻게 표현됐는가를 살피는 '문화지리학'을 통해 한국 현대시를 비평한다. 소월과 백석의 정주, 서정주의 질마재, 오장환과 김수영의 서울, 김광섭의 성북동 등 100명의 시인이 노래한 100편의 시를 살핀다. 〈작가정신·1만8천원〉